

유래로 알아보는 사찰 이야기



월정사 유래

첫번째 설, 오대산 동대에 해당하는 만월산의 "월"자와 서대 수정암의 "정"자가 합해져 월정사라는 설과
 두번째 설, 월정사가 달의 형국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설
 세번째 설, 동대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상원사 유래

상원사 아래에는 과거 이곳에 거주하시던 큰 스님들(한암, 탄허, 만화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습니다.
 이곳 부도터가 옛날에는 '진여원'이라는 절이었던 장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여원이 사라진 후 진여원이 있던 자리 위쪽에 절을 세웠다하여 상원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 정	장 소
전나무숲자연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13시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월정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13시	월정사 경내
상원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4시	상원사 경내
방아다리 자연해설	매주 금요일 14시	방아다리 자연관찰로
소금강 자연(경관)해설	연중/매일 10시,14시	소금강 자연관찰로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선착순 예약(3일전 예약)

- 전 화 : 033-332-6493
- 인터넷 : <http://odae.knp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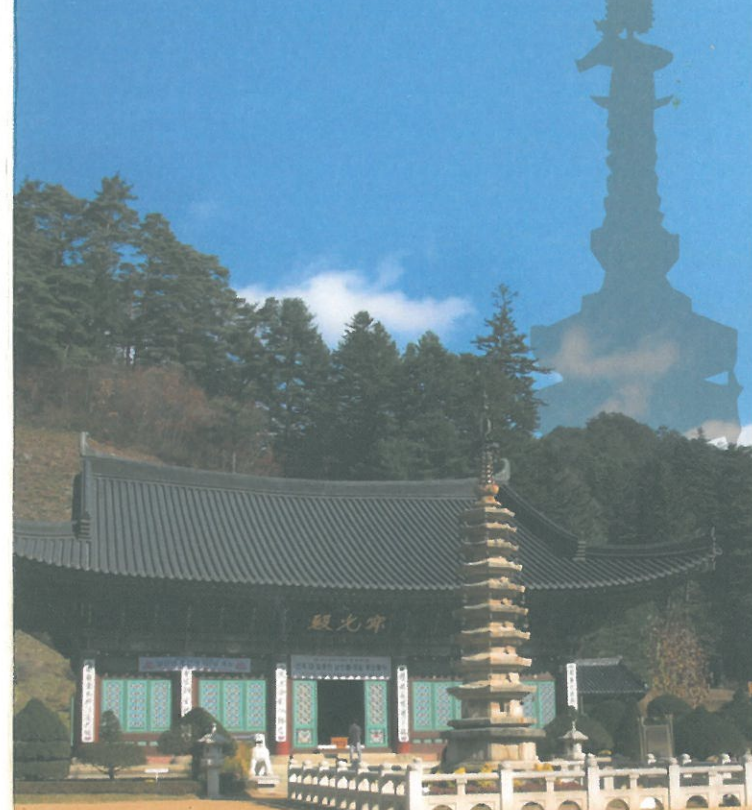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대산국립공원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Tel 033)332-6417~8
<http://odae.knps.or.kr>

Nature, Our Future!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1,000m내외의 봉우리가 원만하게 이어져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입니다.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신라 성덕왕 74년(725년)에 주조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하늘을 날며 공후와 생활을 연주하는 비천상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상원사 중창권선문(국보 제292호)

상원사 중창과 관련하여 세조가 쌀, 무명, 베, 채색 등을 보내면서 그 취지를 함께 적은 글입니다 (조선 초기의 한글 서체를 살피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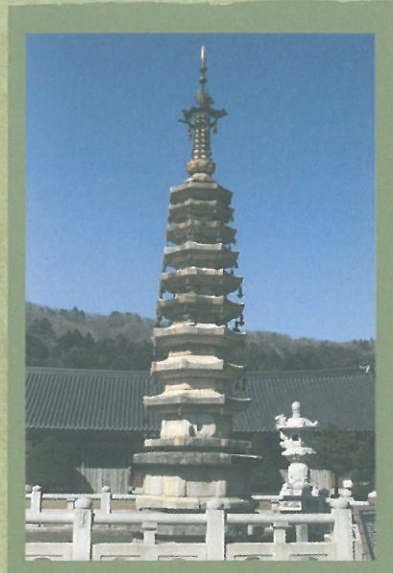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세조임금이 문수동자를 친견하고 피부병을 치료한 뒤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와 남편인 정현조 부부가 조성하였습니다.

오대산 이름의 유래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 다섯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 설과 동·서·남·북·중대 다섯 개의 암자가 있다고 하여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정사 8각9층석탑(국보 제48호)

부처님 진신사리 14과를 봉안하고 있으며 고려 초기 석탑양식을 대표하는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시대의 화려한 귀족불교 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월정사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1970년 해체복원시 1층 탑신과 5층 옥개석에서 다양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현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 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구층석탑 앞에 있던 것으로 그 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조보살좌상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조성된 이 보살상은 약왕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